

경영환경 불안요인 1순위 “고유가”

상의, 300사 설문 34.3% 차지 ... 정책 불확실성 22%에 환율변동 18%

국내기업들은 경영환경과 관련 고유가와 정책 불확실성을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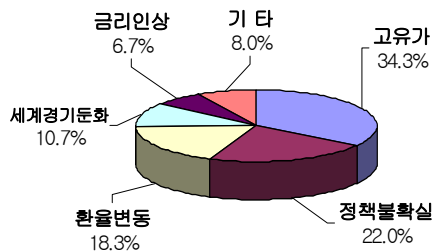
대한상공회의소가 수도권 소재 제조기업 300사를 대상으로 <최근 국내기업의 경영환경 변화요인과 애로>를 조사한 결과, 가장 우려되는 대내외 환경변수로 34.3%가 <고유가>를 꼽았다고 10월24일 발표했다.

다음으로는 정책불확실성(22.0%), 환율변동(18.3%), 세계경기 둔화(10.7%), 금리인상(6.7%) 순이었다.

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유가수준(Dubai유 기준)에 대해서는 10사 중 7사가 배럴당 55달러 이하(50달러 이하 56.3%에 51-55달러 12.7%)라고 밝혔으며 55달러가 넘는다는 곳은 불과 10.0%에 그쳐 국내기업의 절반 이상이 고유가로 인해 수익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.

또 2005년 말과 2006년 평균 유가를 각각 57.5달러, 58.5달러 수준으로 전망해 국제유가가 채차 상승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했다.

한편, 전반적인 경기상황에 대해서는 절반이 넘는 곳이 부정적(침체국면 지속 49.0%에 악화국면 8.3%)으로 보았으며 미약한 회복세 36.7%, 완전한 회복세 6.0%를 나타냈다.



가장 우려되는 대내외 환경변수

한편, 경기회복과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의 역할로는 투자촉진 등 환경 개선(30.9%)을 가장 중요하다고 꼽았으며, 다음으로 정책일관성 등 경제외적 불안요인 해소(27.7%), 추가 부양책 등 내수회복 전념(23.7%) 순으로 지적했다.

경영환경도 2004년과 비슷(47.3%) 또는 악화(28.7%)가 호전(24.0%)보다 많았다.

최근의 콜금리 인상에 대해 응답기업의 25.9%가 경영활동이나 자금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.

이밖에 2005년 환율하락으로 수익성 악화(38.7%)보다 변화가 없다(40.6%)는 곳이 더 많아 최근 환율상승으로 불안심리가 상당히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.

<화학저널 2005/10/25>